

광주세계수영대회, 이제 1년 남았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까지 남은 기간을 알리는 알림판이 설치돼 있다. 왼쪽부터 대회 마스코트인 '달이'와 '수리'.

1년 앞으로 다가온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까지 남은 일수와 개최 날짜를 알리는 카운트다운 알림판이 설치됐다. 광주시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시청 등 17개소에 카운트다운 알림판 설치 9월 전국 유동인구 지점 공식마스코트 조형물도

이 길은 내용을 12일 밝혔다. 카운트다운 안내판은 광주시청과 조직위 사무실을 시작으로 광주정 부종합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시립미술관과 문화예술회관 등 광주시 사업소, 대회 경기를 치루는 경기장 등 총 17개소에 설치됐다. 또 전국적인 붐을 조성하고 시·도의 협력을 위해 전북 완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개발원에도 설치했다. 조직위원회는 이 카운트다운 안내판이 대회의 시작일인 2019년 7월 12일까지 남은 기간을 보여줘 시·도민들이 광주세계수영대회에 다가옴을 더 실감하게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조직위에서는 대회 300일 전인 9월에는 서울역 용

산역, 수서역과 인천, 김포, 무안공항 등 전국의 유동인구가 지점에 대회 공식 마스코트인 '수리'와 '달이'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2019광주세계수영대회는 국가대표들이 참여하는 선수권대회와 세계 각국의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마스터즈대회로 구분되어 개최된다. 선수권대회는 2019년 7월12일부터 7월28일까지(17일간), 마스터즈대회는 8월5일부터 8월18일까지(14일간) 209개국 1만1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종목은 경영·다이빙·아티스틱수영·수구·하이드라빙·오픈워터수영 등 6개이며 남부대, 영주체육관, 조선대학교, 여수엑스포해양공원 등에서 개최된다.

조인호 기자



시메 브루살리코 등 크로아티아 대표팀 선수들이 2018 러시아 월드컵 결승 진출이 확정되자 환호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월드컵 최초로 3G 연속 연장 후 결승 진출

크로아티아가 사상 최초로 3경기 연속 연장전 후 결승에 오른 팀으로 기록됐다. 크로아티아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위로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당연히 우승후보로 분류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크로아티아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당당히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했다. 브라질, 독일, 아르헨티나 등 강팀들이 조별리그와 토너먼트에서 탈락하는 사이 16강, 8강 그리고 4강에서 연장 할부를 벌인 끝에 결승전까지 올랐다. 크로아티아는 12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와의 준결승에서 연장 접전 끝에 2-1 역전승을 거뒀다. 크로아티아는 프랑스와 오는 16일 0시 결승을 치른다.

크로아티아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까지 유고슬라비아라는 국가명으로 대회에 출전했다. 1991년 독립한 이후 1998년 프랑스 월드컵부터 현재의 나라 이름으로 대회에 출전했다. 크로아티아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3위를 차지했다. 월드컵에서 세 경기 연속으로 연장전 승부를 벌인 것은 크로아티아가 잉글랜드에 이어 2번째다. 잉글랜드는 1990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벨기에와의 16강전, 카메룬과의 8강전에 이어 서독과의 준결승에서도 연장전을 펼쳤지만 승부차기에서 패했다. 반면 크로아티아는 3경기 연속으로 연장전을 치르고 결승까지 올랐다. 크로아티아는 이번이 첫 월드컵 결승 진출이다. 크로아티아가 추가되면서 월드컵 결승에 오른 국가는 총 13개국으로 늘어났다.

뉴시스



집념의 크로아티아, 교체 선수 '全無'

체력이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크로아티아 선수들에게 포기란 없었다. 한계를 뛰어넘은 이들의 정신력은 사상 첫 월드컵 결승 진출이라는 달콤한 결실로 이어졌다. 크로아티아는 12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잉글랜드를 2-1로 꺾었다. 경기 시작 5분 만에 선제골을 내줬으나 후반 23분 이반 페리시치(인터밀란)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다. 연장 후반 4분에는 마리오 만주키치(유벤투스)가 왼발슛으로 승부를 뒤집었다. 토너먼트 진입 후 크로아티아는 매번 비랑 끝 승부를 소화하고 있다. 덴마크와의 16강전과 러시아와의 8강전에서는 승부차기를 벌였고, 이날도 연장전까지 120분이나 뛰어다녔다. 즐라트코 다리치 감독은 그럼에도 잉글랜드전 90분 동안 교체 카드를 한 장도 사용하지 않았다. 몸을 지쳤으나 의지로 버텼던 선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다리치 감독은 "우리 팀이 보여준 체력과 힘은 정말 대단했

다"면서 "교체 카드를 활용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크로아티아의 첫 교체는 연장전만 5분에 이뤄졌다. 6분 뒤 두 번째 교체를 단행한 다리치 감독은 팀이 리드를 잡은 연장 후반 10분과 경기 종료 직전 수비 강화와 시간 벌기를 위해 3·4번째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모두들 아직 탈릴 수 있다"고 허벅지, 부상을 안고 있던 선수도 있고, 2명은 한 쪽에서만 뛰어야 하는 상태였지만 느껴지지 않았다"면서 온 몸을 바친 선수들에게 승리의 공을 돌렸다. 덕분에 사상 첫 결승행에 성공한 크로아티아는 15일 프랑스를 상대로 트로피 사냥에 나선다. 크로아티아는 1998년 프랑스 대회 4강전에서 프랑스에 1-2로 패해 결승행이 무산된 아픔을 갖고 있다. 다리치 감독은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한다. 결승에서 우리 최고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집중할 것"이라며 차분히 각오를 다졌다.

뉴시스



전남도지사기에 우승을 차지한 담양군 팀(김종덕, 박정일, 최규대(주장) 이형석, 최명수, 김원택(선수)이 장귀남(전남도협회장) 김용근(담양군협회장)과 기념 촬영을 했다.



전남도회장기 여성게이트볼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곡성 팀(하복심, 하정심, 김영자, 오원희, 진황순(선수)이 장귀남(전남도협회장) 박종환(여수시협회장) 한상우(곡성군협회장)의 축하를 받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지사기 및 협회장기 게이트볼축제 '성료'

우승 담양군·준우승 완도군...협회장기 여성대회 우승 곡성군 차지

제27회 전라남도지사기 및 제5회 전라남도협회장기 생활체육 여성게이트볼대축제가 지난 10일과 11일 2일간 여수시 진남경기장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렸다. 이 경기는 전남도체육회와 여수시 등 여성체육회의 후원으로 전남 게이트볼 동호인 약 800여 명이 참가해 대축제로 이어졌다. 장귀남 전남게이트볼협회장은

인사 말에서 "참가 선수들에게 경기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건강한 삶을 열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상호간 존중과 배려가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종환 여수시게이트볼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동호인 여러분을 30만 여수시민을 대표하여 환영한다"며 "최고의 해양관광도

에서 그동안 연마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멋진 경기를 펼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날 전남도지사기대회에서는 담양군 A팀(김종덕, 박정일, 최규대(주장) 이형석, 최명수, 김원택(선수)이 영광의 우승을 차지해 우승컵과 우승기 등 부상을 거머쥐었다. 특히 우승을 차지한 담양군 팀

의 평균 연령은 47세로 최연소 선수로 출전한 최명수(29세)는 경기 내내 뛰어난 기량을 선보여 동호인들에게 눈길을 끌었다. 이로 인해 전남게이트볼 선수연령이 점차 젊어지고 있다는 증표를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실력을 주목 받았던 완도 A팀은 준우승에 그쳐 아쉬움을 토로 했다. 한편 11일 제5회 전라남도여성게이트볼축제에서는 곡성 A팀(하복심, 하정심, 김영자, 오원희, 진황순(선수)이 구례 토지팀과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KBO, 내일 올스타전 시상계획 확정

미스터 올스타, 기아차더 뉴 K5 증정·승리팀 3000만원 상금



지난해 7월 15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17 KBO 올스타전에서 드림팀 SK 최정미 미스터 올스타에 뽑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O(총재 정운찬)는 13일, 14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팬들에게 선사하는 한여름 밤의 추억을 주제로 개최되는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올스타전의 시상 계획을 확정했다. 14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KBO 올스타전의 주인공인 MVP에 선정되는 선수에게는 기아자동차에서 후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중형세

단 더 뉴 K5(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역대 올스타전에서 MVP 부상이 차량이었다던 적은 1982년 맷시 승용차를 시작으로 36차례의 시상 중 총 26차례가 있었으며, 기아자동차는 2009년 포르테 쿵부터 지난해 스티어링까지 9년 연속 올스타전 MVP에게 부상으로 자동차를 후원해왔다. 올스타전 승리 팀에게는 3000만

원의 상금이 전달되며, 승리감독상과 우수투수상, 우수타자상 수상자에게는 모두 3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올스타전의 또 다른 볼거리인 이벤트 게임에도 총 1400만원의 상금이 걸려있다. KBO 리그 최고의 홈런타자를 가리는 인터파크 홈런레이스 에서 우승하는 선수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함께 인터파크에서 후원하는 LG 트윈스조기가 주어지며, 준우승 선수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시상된다. 최장 비거리로 기록한 선수에게는 인터파크 후원으로 110만원 상당의 다이스 무선청소기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공을 던져 배트를 맞는 '신한은행 MY CAR 퍼펙트피처'와 공을 타격해 정해진 과녁을 맞는 '신한은행 MY CAR 퍼펙트히트'의 우승자는 각각 300만원, 준우승자는 1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13일 올스타 프리이벤트에 펼쳐지는 KBO 퓨처스 올스타전의 승리 팀에게는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MVP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트로피가 전달된다. 뛰어난 활약을 보이는 선수에게 수여하는 우수투수상, 우수타자상, 감투상 수상자는 각각 상금 100만원과 트로피를 받게 된다.

뉴시스

탬파베이 최지만, 이적 후 첫 경기서 '멀티히트' 활약

최지만(27·탬파베이 레이스)이 이적 후 첫 경기에서 멀티히트로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최지만은 1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디트로이트와의 홈경기에서 5번타자 겸 지명타자로 선출된 후 4타수 2안타를 날렸다. 이로써 최지만은 올해 메이저리그에 13경기에 출전해 타율 0.265를 기록하게 됐다. 상대 선발인 조던 짐머맨을 상대로 1회말 첫 타석에는 유격수 땅볼로 3회말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한 발 물러섰다. 본격적으로 활약을 시작한 때는 6회말부터다. 6회말 선두타자로 들어선 최지만은 좌전 안타를 뽑아내며 탬파베이에서의 첫 안타를 신고했다. 7회말에도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짐머맨과 11구까지 가는 승부를 펼쳐 2루타를 쳐냈다. 한편 탬파베이는 3회 케빈 키어미어의 솔로포와 7회 크론의 역전포에 힘입어 디트로이트에게 4-2의 승리를 얻어냈다. 탬파베이는 5연승을 달리며 48승째(44패)를 기록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3위에 자리했다.

뉴시스